

기대 사라지고, 우려만

17 November 2017

02.788.7178 fno@hyundaifutures.com

● 전일 주요 시장 동향

✓ **中 증시, 혼조.** 관망 분위기 속에 혼조 마감. 벤치마크인 상하이지수가 약보합을 나타낸 반면 우량주지수인 CSI300은 소비재주와 부동산주 주도로 상승. 세계 최대 주류업체인 구이저우마오타이가 4.5% 급등한 가운데 소비재 업종지수가 3.6% 상승. 부동산 업종지수도 바오리부동산(6.8% 급등) 주도로 2% 상승. 반면 에너지와 인프라 업종지수는 각각 1%, 0.9% 하락. CSI300지수는 0.8% 오른 4,105.71로, 상하이지수는 0.1% 내린 3,399.86으로 거래 마감. **상해종합지수 -0.1%**

✓ **美 증시, 상승.** 전일 미국 증시는 월마트와 시스코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월가 주요 주가지수들이 큰 폭 상승. 거기에 하원이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업 실적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지지. 배턴은 상원으로 넘어간 상황. 상원은 미국 하원 세제개편안에 불만을 품고, 별도의 안을 발표. 미국 상원 역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전원과 2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할 경우 통과 불투명. 현재 상원 세제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공화당 소속 상원위원은 2명이 넘는 상태.
다우 +0.80%, S&P500 +0.82%, 나스닥 +1.30%

✓ **美 달러, 상승.** 이는 미국 하원이 세제개정안을 통과시킨 영향에 전장에서 3주여 만에 최저치까지 밀렸던 달러가 소폭 상승.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제개혁의 결론이 난건 아님. 일단, 하원만 통과. 문제는 상원. 유로는 이번 주 독일의 견조한 3분기 경제성장 지표가 발표된 이후 급등. 하지만 전날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회복세를 보인 이후 상승폭 감소. **유로/달러 1.1791→1.1768 -0.2%, 달러/엔 112.88→113.06 -0.2%**

✓ **유가, 하락.** 브렌트는 5일 연속 하락.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협약 연장 예상에도 불구하고, 미 증산과 재고 증가 우려 커지며 유가 하락. OPEC이 오는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감산협약을 연장 예상.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OPEC의 정례회의가 끝난 후에야 유가의 방향성이 확실해 질 것으로 언급. 문제는 미국.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이 글로벌 원유 증가분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산유량은 일평균 965만배럴로 사상 최대 규모. 지난해 중간 이후 약 15% 증가. 반면 세계 다른 대부분 지역의 원유 재고는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있음.
WTI -0.3% \$55.14, 브렌트유 -0.8% \$61.36.

기대 사라지고, 우려만.

전일에도 하락세는 이어졌다. 그 중심에는 니켈이 있었다. 2% 넘게 하락하며,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 지난 16일 LME 니켈 가격은 전일대비 2.37% 하락한 \$11,385에 마감했다. 기대는 사라지고, 우려만 남았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 니켈 상승을 이끌었던 재료는 전기차 배터리. 향후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배터리 수요가 증가해 니켈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 낮다. 상승을 위한 긍정적인 해석일 뿐이지 실제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결국, 시장의 관심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때마침 나온 중국의 실망스런 경제지표. 이 지표가 트리거로 작용해 하락을 심화시켰다. 하지만, 하락세도 거의 끝났다고 본다. 계속된 하락으로 가격은 3주내 최저치를 기록한 니켈. 오른만큼 다 토해냈다. 물론, 중국발 우려가 철강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철강시장도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감산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계속 하락은 힘들다고 본다.

그림 1. LME 니켈 가격 추이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한편,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알루미늄 공급과잉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중국 제련소들의 해외 이전 가능성과 보크사이트 생산계획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생산 제재에 맞춰 제련소를 폐쇄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홍차오그룹이 폐쇄된 제련소들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중국알루미늄공사(치날코)의 최고경영자(CEO)는 올해와 내년 초 서아프리카와 기니에서 보크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 집합체)를 생산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중국 알루미늄 재고가 생산시설 폐쇄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은 재고가 주목할 만큼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때문에 금일 발표되는 중국 알루미늄 재고가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생산시설 폐쇄에 따른 상승흐름 역시 되돌아 갈 가능성이 커졌다.

Precious Metal

금, 혼조. 미 하원이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변화된 재정정책이 미국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데 분주.

금 선물가격은 50센트, 0.04% 상승한 온스당 1278.20달러에 마감. 금 현물가격은 뉴욕거래 후반 0.1% 내린 온스당 1277.80달러에 거래. 전날에는 1289.09달러까지 올라 3주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다음 달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96.7%로 예상. 전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속도가 회복됐다고 발표. 이는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지지. 또한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실업률 하락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연준이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BMI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금 생산 증가세는 2026년까지 매년 둔화될 것으로 예상. 금광과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결과.

은 가격은 0.4% 상승한 온스당 17.06달러에 거래. 백금은 0.1% 오른 온스당 932달러 기록. 팔라듐은 0.4% 상승한 온스당 987.50달러에 거래.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마감.

● 품목별 주요 뉴스

✓전기동

Indonesia Forms Mining Holding Company as Freeport Deal Looms
Fire Hits Freeport Indonesia Port Facility In Papua
China October Cu Output at 781K mt, Up 6.0% YoY
U.S. Industrial Output Boosted In October By Hurricane-Related Rebound
Hassett Says Tax Plan Could Make 3% U.S. Growth Run Sustainable
China's Copper Smelters Insist No Concentrate Deficit After Surprise Shanghai Meeting

✓알루미늄

Indonesia Forms Mining Holding Company as Freeport Deal Looms
Aleris Unveils New Al Auto Body Sheet Production Facility in Lewisport, Kentucky
Arconic, Airbus Reach Research Agreement to Advance 3D Printing for Aerospace
Aluminum Supply Cuts in China Set to Disappoint This Winter
Chinalco To Cut 2M mt Of Alumina Capacity This Winter
Hongqiao Shuts Down Aluminium Smelting Pots For Winter

✓니켈/주석

Indonesia Forms Mining Holding Company as Freeport Deal Looms
BHP Selling Nickel Assets
Nornickel Cuts Impact On Arctic Environment By Implementation Of Modernization Projects
Philippine Nickel Producer, Russian Firm Putting Up Processing Plant

✓납/아연

China Oct Pb Output at 416K mt; YTD Production 5.06M mt Annualized, Up 20.9% YoY
China Oct Zn Output at 577K, a Record High; YTD Production 6.08M mt, Down 1.6% YoY
Trevali Executives See At Least Two Years Of Strong Zinc Pricing
Zinc Market Focus Turns To New Supply, But Don't Forget Quebec
Lead Batteries are Most Recycled Consumer Product in America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증가	Change(\$)	%	월 누적평균(Cash)
전기동	6,761.0	6,813.5	6,721.0	6,754.0	1.0	0.01%	6,825.8
알루미늄	2,105.0	2,135.0	2,099.5	2,112.0	8.0	0.38%	2,119.4
아연	3,135.0	3,170.0	3,120.0	3,133.0	-11.5	-0.37%	3,253.3
납	2,434.5	2,440.0	2,401.5	2,404.0	-22.0	-0.92%	2,478.3
주석	19,395.0	19,610.0	19,290.0	19,345.0	-40.0	-0.21%	19,590.0
니켈	11,660.0	11,755.0	11,320.0	11,385.0	-270.0	-2.37%	12,357.1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251,550	DOWN	3,900	155,175	96,375	1,250	5,150
알루미늄	1,161,475	DOWN	4,350	913,775	247,700	850	5,200
아연	229,250	DOWN	2,850	164,350	64,900	0	2,850
납	145,975	UP	50	101,200	44,775	150	100
주석	2,145	UP	65	1,995	150	65	0
니켈	382,446	DOWN	204	253,806	128,640	66	270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277.7	1280	1279.87	1.33	1278.2	0.50
SILVER			17.101	0.016	17.072	0.101
PLATINUM	931	931	934.3	2.6	934.6	3.10
PALLADIUM	986	983	993.65	0.8	984.85	-0.25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